
英國 OFTEL, Mercury에 대한 規制緩和 方針

OFTEL Cruikshank 청장은 영국 제2의 전기통신사업자인 Mercury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Mercury는 BT나 여타 소규모 경쟁 상대에 대해 유리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Mercury에게 있어 요금 개정전 28일전에 요금안을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요금개정 규정은 매우 불리한 것이었으나, 이번 조치가 취해질 경우 혁신적인 요금 패키지의 도입도 가능해진다. 현재 Mercury의 면허는 1991년 이전의 독점상황하의 것으로, 독점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 방지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OFTEL Cruikshank 청장이 제안하는 slimline 면허는 소규모 신규사업자에게 부여한 것과 유사하다.

英國 OFTEL, 電信柱와 管路의 共有에 관한 諮問 要請

OFTEL Cruikshank 청장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위한 전신주와 관로의 공유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업계에 구하였다. 이를 위한 자문문서에는 “특별히 소비자 맥내의 접속이 제한되어있는 상황하에서는 공유가 매우 경제적이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담겨 있다.

OFTEL Cruikshank 청장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며, BT가 시험을 위해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상기 자문의 자문기한은 4월 15일이다.

獨逸, 自由化後 統一電話番號에 관한 基本原則 發表

1995년 12월 독일의 베티 우전대신은 1998년 초부터 실시되는 전기통신자유화 일

정에 대비하여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번호시스템에 관한 보고서의 개요를 발표하고 경쟁 도입시 상기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① 현행 전화번호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 가입자는 현재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향후 신규사업자의 번호는 특별한 부가번호를 필요치 않도록 한다는 3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의 평등한 경쟁조건이 보장되게 된다. 번호 포터빌리티를 위해서는 교환기의 디지털화가 필요한데, DT는 교환기의 디지털화를 전기통신의 자유화가 실시되는 1998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EU, 通信自由化 細部措置에 同意

EC(European Commission)는 1996년 2월 28일,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1998년 1월 1일로 예정된 기본전화서비스 개방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통신 자유화 계획의 최종안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럽국가연합(EU) 각국에게 1996년 7월 1일까지 신규 통신사업자들이 각국 전화회사를 바이패스하거나 철도회사나 전기회사 등의 공공사업자들의 '대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 통신위원회(Telecommunications Council)는 이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통신시장이 1998년까지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했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7월이라고 명시한 데드라인은, 대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사업을 1998년까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던 일부 국가의 반발로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미 EU내에서 자유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규 통신사업자가 국영사업자들의 종종 높은 비용의 인프라를 이용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